

미국 아틀란타 2001 국제양계전시회

미래의 양계산업, 종합경영시스템으로 전환예고

— 22개업체 40년 이상 매년 참가 —

◇ 정리 / 홍보부

지난 1월 17~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시 Georgia World Congress Center에서 “2001 국제 양계 전시회”(2001 INTERNATIONAL POULTRY EXPOSITION)가 개최되었다.

본 전시회는 금년으로 제 53회를 맞이하였고, 양계박람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단일 분야 전시회로서는 가장 규모가 크며, 미국양계협회(U. S. Poultry and Egg Association)가 주관하여 매년 1월 중순에 동일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매년 100여명 이상이 전시회를 보기 위해 아틀란타를 방문하는 등 양계관련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진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출국을 며칠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 전시회 참가를 준비했던 많은 농가 및 관련인들이 참가를 포기하는 사태를 맞이하는 가운데에서도 약 50여명의 관련인들이 박람회

를 참관하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전시 업체수는 약 1,085개 업체이며, 이중 신규참여 업체수는 153개업체이고, 22개 업체는 본 전시회에 40년 이상 매년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관 인원수는 일반 참관자와 출품업체 인원을 합산하여 약 25,000명으로 추산되고 등록한 사람만이 출입증 빼지(등록비 및 빼지 요금 35달러)를 달고 출입할 수 있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시장 내부 광경

운영을 보여주었다.

본 전시회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주제 “Focusing on the Future”에 표현된 바와 같이 미래의 양계경영은 종합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될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장의 각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사무실의 Computer와 Software package에 의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것을 조정하여 개선함으로써 농장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축사, 시설, 기구를 이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품목들이 전시되었다.

전시장은 동서(East and West) 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시장 총 규모는 약 35,000㎡이다. 동부전시장(EAST-RED HALL)은 약 1,900여 부스가 배치되어 닭, 오리, 칠면조 등 가축의 품종과 가축사육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기계, 기구, 계기 구조, 부화기, 동물 약품 등이 전시되었으며, 세계 유명 품종을 전시한 부스에는 각국에서 총판을 맞고 있는 협력업체와 관심있는 사양가들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또한 서부전시장(WEST-BLUE HALL)은 약 4,000여부스에 전시되면서 닭, 오리, 칠면조 사육 농가에서 생산된 육계와 계란에 대하여 가공처리하는 공장형(대형) 기구, 기계가 전시되었으며 특히 가공처리 기구는 위생적으로 처리, 가공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시되었으며, 닭고기의 2차, 3차 가공기계 기구의 전시, 계란의 등급과 포장에 관한 기계·기구, 알가공 기계·기구 등 프랜트(Plant) 중심의 대형기계 전시되었다. 특히, 전시홀 통로 천장에는 참관자가 찾아가기



△ '미래 양계산업의 조명'을 주제로 열린 '2001 국제 양계전시회'가 아틀란타 조지아주 월드 콘그레스 센터에서 열렸다.

쉽게 하기 위해서 참가 부스번호를 크게 제시하여 주어 원하는 부스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학술행사는 주로 교육프로그램과 Work Shop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는데, 행사장은 서쪽 행사장 가는 길에 중·소형 세미나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시장 참가자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시장과 교육 세미나실이 같은 동선상에 위치하여 있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세미나는 17~18일 양일간에 걸쳐서 “미국 양계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축산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Work Shop 프로그램은 육계처리장 및 가공장의 HACCP에 대한 실습과 실험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광우병 파동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새로운 도계검사규정에 따라 위생검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자료제공 : 오봉 국 박사, (사)대한양계협회 상임 고문, 200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양계**